

차시별 교수·학습 지도안

더 포스트 · The Post (2017)

구분	내용
과목	진로와 직업(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병용 가능)
단원 · 차시	1-4 직업의 사회적 책임 1 차시(45~50 분) 대상: 고등학교
편명(원제·연도)	더 포스트 · The Post (2017)
성취기준	[12 진로 01-03]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직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.
학습 목표	①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. ② 희망 직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리할 수 있다.

수업 환경 교사용 전자칠판(/board) · 학생 개인 단말 · 6 자리 수업 코드(QR)

교수·학습 과정

◆ 교사 활동 ○ 학생 활동

단계	시간	교수·학습 활동	자료 및 유의점
도입	5 분	◆ 수업 코드·QR 안내, 입장 확인. ◆ “회사를 지키는 일과 알릴 의무가 부딪치면 무엇을 저울에 올려야 할까?”라고 물으며 발행인의 결정 이야기임을 연다. ◆ 자유 진행 모드로 전환(문 열기).	이 편은 이야기 분량이 6 편 중 가장 길다(서사 화면 20 장). 도입을 5 분 내로 마친다.
전개	27~32 분	○ 각자 속도로 긴 서사를 읽는다. 발행인의 저울(선택), 취재 대상과 친분이 있는 기자의 사안 담당(입장), 대법원 판결(예측)에 응답한다. ◆ 응답 공개(모으기)는 각 1 분 내로 짧게 끊는다. 수업 30 분 경과 시점까지 대부분의 학생이 활동에 진입하도록 칠판의 진행 현황을 살피고, 늦은 학생은 개별 독려한다. ○ 활동 1 「직업의 사회적 책임 — 가장 적절한 설명은?」: 선택형 문항에 답한다. ○ 활동 2 「기자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」(50 자 이상) → 활동 3 「내가 원하는 직업과 그 책임」(50 자 이상)을 서술한다. ◆ 순회하며 활동 3 에서 ‘알릴 의무’와 ‘지킬 의무’가 자기 희망 직업에서 각각 무엇인지 나누어 적도록 발문한다.	활동 1(선택형)은 칠판·피드에 노출되지 않는다. 공유 단계의 대상은 활동 2·3 이다.

단계	시간	교수·학습 활동	자료 및 유의점
정리	10~13 분	◆ 모두 모여(gather) 실행, 공감 TOP3 로 서로의 판단 기준을 함께 읽는다. ◆ 심화 해금(문 열기). ○ 심화: 꼬리질문 답변, 친구들의 판단 기준 피드 읽기·공감, “옳은 일을 개인의 용기에만 맡기지 않으려면(제도의 몫)” 자료 읽기. ◆ “감시는 판결이 아니라 습관”이라는 엔딩 문구로 차시를 맺는다.	이 편은 영상 없이 이미지·연출 화면으로 구성된다.

평가 및 기록 연계(세특)

활동 2·3 이 [12 진로 01-03]의 직접 근거다. 세특 초안 생성 시 이익·책임 충돌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 진술(활동 2)과 그것을 자기 진로로 전이한 정도(활동 3)를 관찰 포인트로 삼는다. 선택형(활동 1)의 정오는 기록 대상이 아니라 개념 확인용이다.

※ 본 수업은 학생 자율 진행(self-paced) 방식으로, 교사는 진행을 통제하지 않고 입장 안내·응답 공개·심화 해금 시점만 관리한다.